

日 보복 대응에 힘 보태는 대학가... “기술 국산화 지원”

대전·충남지역 11개대 총장 모여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 머리 맞대
159개 소재·부품기업 자문 등 지원
서울대·경북대, 국산화전담팀 꾸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해 대학이 나섰다. 대학의 수장인 총장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한 것. 최근 충남대학교에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충남대를 비롯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대덕대 ▲대전대 ▲북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해천대 등 11개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



이상민 국회의원 주최로 충남대에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대

지역 대학들은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소, 지역기업과 전략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한일 갈등을 기

회로 삼아 인력 양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출연연, 기업 간 협업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소재·기술 국산화를 지원·운영하겠다는 대학들이 이어지고 있

다. 앞서 손을 든 대학은 카이스트다. 카이스트는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 핵심소재, 부품, 장비업체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설치하기로 5일 결정했다.

이 대학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소재·부품 등 관리 품목과 연관된 중견·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지원과 자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추진한다. 향후 운영성과 등을 보고 지원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도 뒤따랐다. 서울대는 7일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전담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소재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서울대는 “반

도체공동연구소 등 서울대 공대 소속 6개 연구소가 관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공대 교수 320명도 SNU 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북대 공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해 공대 부속 산업 현장기술지원단에 기술국산화지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기술지원단은 기계·장비기술부, 첨단소재기술부, 화공·생명기술부, 정보기술(IT)부, 에너지·환경·건설기술부, 기술국산화지원부로 구성된다. 경북대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을 받는 159개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및 자문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건국대 “입시 수기·지원전략 유튜브로 보세요”

‘건국대학교채널’서 동영상 서비스

건국대학교는 최근 수험생들과 학부모 모두의 접근성이 높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해 2020 대입 수시모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구독자수 4700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건국대학교 채널’에는 ▲2019년 전체 수석 학생 인터뷰 ▲입학사정관이 직접 분석하는 2020건국대 수시전략 ▲건국대 학종 합격자의 합격 비결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는 학과소개 ▲2020건국대 입시변화 ▲논술특강과 모의논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입시 정보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또 수험생들에게 학과 전공에 대한

소개와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전지적 전공시점’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서비스된다. 특히 전지적 전공시점 영상에서는 각 전공별 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대화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 구성이나 수업내용, 졸업 후 진로 등 전공학과에 대한 흥미진진한 얘기를 담았다.

건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건국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건국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좋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학교법인 성신학원 신임 이사장에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고철환(73·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제3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3년 7월 10일까지다.

고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학교법인 상지학원 임시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임했다.

한편 성신학원은 지난 7월 11일부터 임시이사체제로 유지되던 법인 이사회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열어 고 신임 이사장을 선

/한용수 기자

한미연합연습 돌입... 北 “남측패싱전략”

사령관으로 첫 한국군 대장
北 “대화해도 남북아닌 북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춰 한국군 주도의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같은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한국 패싱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5~8일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의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의식한 듯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해, 긴장 수위를 높여 왔다.

이번 연습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은 북핵 북미 실무자회담 등 변화된 안보상황을 고려



박한기 합참의장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의전용 무개차에 올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해 훈련병력과 기간이 줄었다.

또한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위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군의 IOC 검증이 중점인 만큼 올해 처음으로 연합연습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최병혁 대장이 사령관으로 전체적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에서 IOC 검증단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

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참가하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군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습인 만큼 북한은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대화는 할 수 있지만 남북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는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다”면서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하니, 중단 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또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철 기자 captinn@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내일 김대중전집 완간 출판기념회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13일 오후 3시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고 김대중전집 출간위원회가 주최한다.

출판기념회는 김성재 김대중전집 출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전집소개, 축사,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김

용학 연세대 총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축사를,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이화여자대학교가 주최하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및 컨설팅’이 17일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0학년도 전형과 지원전략, 2019학년도 전형결과에 대해 안내되는 자리인 만큼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전략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작년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지원전략 핵심 포인트가 안내된다. 또 수험생의 성격에 적합한 전형선택 가이드와 수시모집 지원전략 팁도 얻을 수 있다.

또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화여대 입학관홀에서 수시모집 확대상담을 개최해 최종 선택을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이화여대 수시모집 지원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확대상담은 9월 1일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운영될 예정이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ewha.ac.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